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74.72	↓ 코스닥	891.29
	(-26.56)		(-7.74)
↑ 금리 (미국 9년)	3.891	↓ 환율 (원/달러)	1324.40
	(+0.041)		(-1.50)

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 가보니
방산 초격차 자신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통화 긴축 - 부동산 정책 '엇박자' 가계 빚 한 달새 7조 늘어 1075조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규모 50년 주담대 등 정책 불균형에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 부추겨 부채 축소 위해 당국간 공조 필요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부라부라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다지만 명확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상승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월 2조 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 9000억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증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다. DSR 규제 완화 수

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심어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0~2021년 부동산 급등기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디레버리징' 실패 이유로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p)를 올렸다. 치솟은 가계대출과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가계대출 진화에 나섰다

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통화정책은 '긴축' 모드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것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한 셈이다.

한은은 지난 6월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있고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더 누증될 것을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을 강조하며 부채축소(Deleveraging)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계치 80%를 큰 폭으로 웃돌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5%다.

한은은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관련 당국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이 반대 방향일 때 정책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 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철도노조 1차 파업 종료

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이 종료된 1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하역작업을 위해 화물열차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바이오 '존립 매직' 통했다 연간 누적 수주액 3조 '가시권'

BMS 등 글로벌 빅파마 14곳 확보 고객 만족 최우선, 신속 대응 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연간 누적 수주액이 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취임 3년 만에 이룬 역대 최대 기록이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존립의 매직'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인 BMS와 총 2억4200만 달러(약 3213억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의약품을 2030년까지 위탁생산(CMO)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BMS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사업을 시작하면서 맞은 첫 고객사였다. 이후 이제까지 신규·중액 계약을 체결하며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1공장이 가동되던 2013년 처음 CMO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제품 수 및 서비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계약을 맺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향후 7년여간 BMS의 주력 제품인 면역항암제의 생산 기지로 활용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오랜 기간 파트너 관계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 생산능력, 초스피드 생산 속도와 함께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은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존립 사장의 취임 이후 시장 수요와 고객사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MS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빅파마와의 신규·중액 계약을 지속 확대하며 이제까지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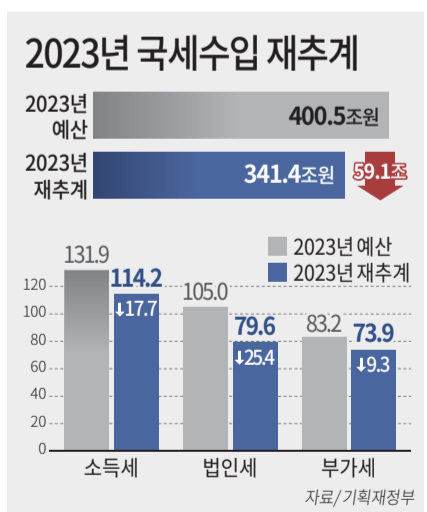
국세 59조 덜 걷힌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

법인세 25조 구멍... 43% 차지 기재부, 가용재원 동원 결손 대처

법인세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25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도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 법인세 부족분이 25조 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4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당초 짜놓은 법인



세수 예산이 105조원인데 79조6000억원 걷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양도소득세가 12조 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각종 소득세수가 예산(131조9000억원) 대비 17조7000억원 줄어든 114조2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1~7월 217조6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14% 이상 부족한 규모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 한동훈 "이재명 단식 왜 하는지 본인도 설명 못하지 않나" /사진 뉴시스

▲ 女정부 '통계조작' 의혹... 부동산원 노조 내부고발 있었다
▲ 외교부 "日 '군함도' 새로운 설명조치, 끝이 아닌 과정의 시작" /사진 뉴시스



▲ '야당 빈자리'... 더불어민주당 당내 임의 일장 보이콧 /사진 뉴시스
▲ 野,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대통령실 앞 '내각 총사퇴' 시위

尹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4박6일 순방길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기조연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면담 30여개국과 양자회담 등 일정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경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공군 15비행단장 등의 배웅을 받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 양자 회담 등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미국 순방을 통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30여국 이상과 양자회담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 기후대응,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30여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4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뉴욕을 출발해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韓 기업, 인니 디지털·그린 전환 돕는다

무협, 한-인니 미래산업 협력 포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한-인니 미래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핵심광물, e모빌리티 및 2차전지,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최사를 통해 "인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신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일손이 부족한 산업에 젊고 풍부한 인니의 인적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인적 교류 확대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핵심광물 등 협력 논의 "인적자원 필요... 교류 확대 제안 전년비 교역 33%, 투자 16% 상승"

인니 장관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음극재 등 한국과 투자·협업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시장과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그린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리 삼부아가 차관은 "작년 한-인니 교역은 전년 대비 33.1%, 투자는 15.7% 증가해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니 저개발 지역의 농부들을 위한 창고 영수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한국 기업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간 협력과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도 기대되는 분야다.

무협 진지민 해외마케팅실장은 "혁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몰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미래산업 협력 포럼'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 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생태계 요건인 시장 확보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의 공동운동을 통한 자본 지원 ▲대기업과 공공분야 오픈이노베이션 교류 ▲한국 ICT 기업의 인니 스타트업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이르완다 아리프 장관 특별보조관은 "인니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음극재, 분리막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 제련 고급 공정과 광업 부문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4배 규모 면적으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모하메드 알리 브라위 차관보는 "인니 정부는 앞으로 누산타라를 2045년까지 인니를 대표하는 스마트, 그린, 지속가능의 탄소중립 도시로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미 스마트화나 UAM 교통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선진교통체계 구축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가 등 불확실성 지속... 물가안정 역점”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대내·외 리스크 철저히 관리 할 것” 첨단산업 클러스터 후속조치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대해 언급하고 물가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을 이 같이 진단하고 대내외적 위험요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는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중국인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대응책으로, “주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초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중질(WTI) 등의 국제유가 선물은 이날 오후 기준 90달러를 넘겨 거래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후속조

치를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 등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 등 2027년까지 5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율형 공장’을 비롯해 공장 여러 곳 연결해 공정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협업공장’ 등 고도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관, 기준금리도 점진적 조정 검토해야”

>> 1면 '통화 긴축-부동산 정책'서 계속

금융권에서는 3대 부채(가계·기업·정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통화당국과 금융당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의 빚이 증가하면 세수가 줄면서 국가부채에도 악영향을 미쳐 연쇄효과를 일으킨다는 것.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위험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부족분 23.5조 지방정부에 부담 돌리기로

>> 1면 '국세 59조 덜 걷는다'서 계속

정부는 지난 2021년과 작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엔 두 자릿수대 '세수결손'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손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40% 안팎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5000억 원 정도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중앙정부 부담 35조 원가량에 대해선 4조 원 안팎의 잉여금, 24조 원의 기

금여유재원, 통상 약 10조 원의 불용예산(편성 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 규모는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이후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했다. 이 결과 외평기금에 원화가 많이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기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의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년간 2.2兆 집중 투자 특화단지 예타면제 추진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쏟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 등 내년에만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인프라 조성 등 4000억 투입
입지 규제 완화... 직접 효과 제고
용인 반도체 단지 조기 착공 전망**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원을 시작으로 4587억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원을 시작으로 1조2383억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6년말 착공이 예상됐던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착공시기는 예타가 면제되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를 완화해 특화단지의 신속 구축도 지원한다.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식이다. 일괄 발주 허용으로 특화단지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거점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창업공간·숙박 시설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을 투자한다.

아울러 신규 입주 기업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단지 내 개발 제품에서 단지 밖 개발 제품까지 넓힐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 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CVC 규제 완화... 벤처 투자 확대 독려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

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 준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을 기존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이 더 많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 요건을 완화한다.

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내년 해외 공동 R&D 1.8조 투입 임대주택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 바이오 분야 1조 메가펀드 조성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내년에 해외 공동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원), 우주 공동연구(17억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조정에 1조 투자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내년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α' 육성

중기부 新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
로봇자동화설비 보급 등 맞춤 지원
이영 장관 "초일류 제조강국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α'를 만든다.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민간제조데이터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은 그간의 제조혁신 정책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중기부는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



이영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해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는다. 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해 2027년까지 5000개(질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2만개(로봇 자동화설비 보급의 양적 개선)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를 육성하는 것이다.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을 적용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이나 가치사슬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델로 키운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또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선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무)

더욱 새로워진 시그니처 암보험 3.0(무)을 만나보세요

상담문의 080.365.636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계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암보험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1905호 (2023-02-21~2024-02-20)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3-04-013



음향수조에 공동수조까지... 한화오션, 방산 초격차 '자신'

프로

시흥 R&D 캠퍼스

국내 조선소 최초 방산전문 기관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연구개발 수중 방사 소음 최소화 '음향수조' 선박의 추진력 확보 등 '공동수조'

“방산과 관련해서 늘 ‘초격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H사와의 대결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15일 찾은 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 투어 전 강준규 한화오션 중앙 연구원장이 한 말이다. 방산 업계에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과 늘 비교 선상에 오르기 일쑤지만 강 원장은 경쟁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을 늘리고 R&D 투자로 ‘초격차’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내 위치한 방산 기술 연구센터는 국내 조선소 최초의 방산 전문 기관으로 제품, 함정에 대한 연구개발과 신기술 개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기술 발전을 위해 시흥 R&D캠퍼스와 육포 조선소에 최첨단 연구설비와 우수 연구인력을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가 보유한 예인수조.

/한화오션

갖춘 5개의 연구 조식을 운영 중이다.

한화오션은 앞서 2조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신사업을 이끌 연구개발에 투자금을 쏟는다. ▲초격차 방산 솔루션 9000억원 ▲친환경·디지털 선박 분야 6000억원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2000억 ▲스마트야드 3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2조원은) 2040년에 매출 30조 이상, 영업이익 5조원 이상의 회사로 변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에서 유일

하게 음향수조를 갖추고 있다. 음향수조는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해 대상 표적의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산 분야 전문 연구시설로 특수선의 방사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물속의 소음은 적군에게 아군의 함정을 들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함정들의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해 적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길이 25m, 폭 15m, 깊이 10m에 달하는 수조에는 8.5m 높이까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고요해 개장 전 수영장을 연상하게 했다. 3000톤가량의 물은

가정용 욕조 1만개에 달하는 용량으로 물을 빼는 시간만 약 4일이 소요되고 한번 채우는 데 2억원이 든다. 1m 두께의 이중벽으로 설계된 수조는 외부로부터의 방진·방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특수 처리된 내벽은 벽에서 반사된 음파가 실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맡았다.

한화오션은 이날 음향수조에서 수중 방사소음 저감 기술인 ‘마스커 에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마스커 에어 시스템’은 공기 분사로 선체에 에어커튼을 만들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 생태계 및 환경 보호를 근거로 상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구가 적용되는 분야가 군함 같은 특수선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선으로도 범위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수조’도 선보였다. 전체 길이 62m, 높이 21m의 네모 형태로 생긴 ‘공동수조’에선 총 3600톤(t)의 물을 최대 초속 15m까지 흘러보내 선

박의 프로펠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시설이다. 선박의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선박은 프로펠러를 추진력으로 전진하는데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배 앞쪽을 향하는 날개면 압력이 매우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물속 압력이 급격히 변하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이 일어나 배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며 이는 소음 최소화를 위한 연구라고 언급했다.

예인수조는 길이 300m, 폭 16m, 높이 7m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조로, 모형선을 실험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한화오션은 예인수조에서 나무나 복합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모형선을 띄워 예인차로 끌며 선박의 저항·운동·조정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예인수조를 소개한 이창훈 성능평가 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예인수조가 없을 때는 해외에 위탁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톱3’였다”며 “이제는 우리가 시설을 갖췄으니 1등을 하지 않겠느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전기차 시장 성장세 ‘주춤’... 라인업·배터리 등 전략 다변화 ‘승부수’

글로벌 전기차 소비 위축 등 둔화 가성비 모델 앞세워 진입장벽 낮춰 국내 업체, LFP 배터리 전기차 출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둔화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완성차 업계의 전략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 초기 완성차 업체들은 넓은 실내 공간과 긴 주행거리에 초점을 둔 제품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경형, 소형, 중형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해 가격을 낮추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과거 LFP 배터리의 단점 중 하나였던 에너지 밀도 문제도 개선되면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있다.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정면.

1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성비 모델에 불을 지핀 건 테슬라다. 테슬라는 최근 중형 SUV 모델 Y의 중국산 제품인 후륜구동형 모델

을 국내 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던 기존 모델 Y 롱 레인지 모델(7874만원)보다 2000만원 저렴한 5699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을 적용하면 5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품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오는 20일 출시하는 중형 SUV 토레스 EVX도 중국 업체 BYD의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췄다. KG모빌리티가 처음 선보이는 전동화 모델인 만큼 가성비를 앞세워 토레스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판매 가격은 E5 4850만~4950만원, E7 5100만~5200만원 수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3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는 경형 SUV 레이의 전기차 모델 ‘더 뉴 기아 레이 EV’를 출시한다. 이 모델도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레이 EV는 35.2kWh(킬로와트시) 용량의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205km·도심 233km이며, 복합전비는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m/kWh이다. 150kW 급 급속충전기로 40분 충전 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가격은 2775만~2955만원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 200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오는 11월 볼보의 소형 전기 SUV EX30을 국내 최초

공개한다. 볼보 EX30은 브랜드 최초 소형 SUV이자, 순수 전기차 네 번째 모델이다. 지난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다. 후륜 모터 기반의 LFP 배터리 모델과 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트윈 모터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유럽 WLTP 기준 주행거리는 후륜 LFP 배터리 344km, 후륜 NCM 배터리 480km다. 아직 국내 출시 모델의 구체적인 사양과 판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30은 올 하반기 생산을 시작해 2024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인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11월 최초 공개 및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출고에 나설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SKB,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합의

번들 요금제 등 다양한 상품 마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을 끝내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소비자 편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IPTV(B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주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소비자가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T·SKB는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을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SKT·SKB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SKT·SKB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AI Company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공사 진행중인 5공장 미래도 희망적”

» 1면 ‘삼성바이오’서 계속

올해 화이자, 노바티스 등 빅파마들과의 대형 수주에 이어 BMS 계약 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누적 수주액은 역대 최고 기록인 2조7000여억 원을 기록중이다. 올해 안에 누적 3조원의 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전체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은 그 규모가 24만 리터에 달하는 초대형 생산시설임에도 대규모 수주가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 중이다. 4공장 매출은 오는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계약은 보통 최소수매량(MTOP) 형식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과 물량은 고객사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의 과잉설비(Overcapacity)에 대한 우려를 없앴고 동시에 현재 공사 진행중인 5공장의 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올해 4월 착공,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ergy**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 픽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Hi

SK에너지의 **그린픽처**

檢,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野, 체포동의안 앞두고 고심

단식 19일차... 건강 악화 징후에 응급치료 후 녹색병원서 안정 취해 이 대표, 병상서도 단식 의지 밝혀 野,尹 정부·검찰 규탄 피켓시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선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응수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게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건강 악화 징후가 나타나자 이날 구급대를 불러 이 대표를 서울 여의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에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

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게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으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

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 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뇌물로 보았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16일 의총에서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용산에 가서 상임위는 교관보호 입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회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가결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일부 의원들은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말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

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 시작할 때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하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韓, 기업가형 정부 돼야”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천기술 R&D 특별예산 편성 나서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발목... 대책 강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쇠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

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서 오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

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다퉀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 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대진표 확정... “민생안정” vs “정권심판”

민심 척도 확인할 총선 전초전尹 vs 文, 檢 vs 警 대리전 구도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출하면서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직선거이자 유일한 수도권 선거로, 민심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총선 위기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내 경선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통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대 경찰’의 대리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정의당에서는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인 권혜인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보궐선거 총력전에 나설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재개발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내세우며 ‘민생안정’을 앞세워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21일에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격 선거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강서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선거”라며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조작’과 ‘공작’이 아닌 오로지 ‘민’의에 의한 ‘진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띄우며 김 후보자가 보선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 지역 현역 의원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

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만큼, 조직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진 후보의 사무실에서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 후보자와 한 몸이 돼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김 전 수사관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39억원을 쓰게 한 것도 모자라 다시 출마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2023.9.21.(목) - 9.24.(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황유민
Yu-Min Hwang

김수지
Su-Ji Kim

리디아고
Lydia Ko

박민지
Min Ji Park

박지영
Ji-Young Park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벤처스 | 핀크

주 관 : 

방 송 : 

후 원 : 





기획/운영 :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질병·치매 등 보장

삼성생명이 주보험 가입만으로 3대 질병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기본 보장

삼성생명은 3대 질병과 중증장기요양, 치매 등을 보장하는 '삼성 고품격 인생보장보험'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30%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5대 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납입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자궁암 ▲전립선암 ▲급성뇌경색증Ⅱ 등을 진단받거나 장애지급률 50% 이상이라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NH농협손해보험

유병자 심사 간소화 총 65개 담보 보장

NH농협손해보험이 유병자간편심사 제도를 통합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심사 간소화 담보는 65가지로 넓혀 NH농협손해보험 (무) NH하나로 간편한건강보험'의 가입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다섯 가지의 간편심사 제도를 하나의 상품에 통합했다.

총 65개의 담보를 보장한다. ▲중증 갑상선암진단비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뇌졸중혈전용해치료비 ▲특정허혈성심장질환혈전용해치료비 등 4개의 신담보를 탑재하여 보장영역을 넓혔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상해50%후유장애 ▲질병 80%후유장애 ▲상해성뇌출혈 발생 시 납입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왼쪽)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이 복합상품 출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신한카드 발급 고객 치아보험 가입시 할인

신한라이프가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치아 보험을 선보인다.

◆ 자부심 갖고 웃을 수 있는 치아보험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 더 프라이드 복합 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휴 상품의 키워드는 '프라이드(PRIDE)'다. ▲더프라이드 신한참좋은치아보험플러스Ⅱ ▲'신한라이프 더프라이드' 카드상품 등으로 구성했다.

'더프라이드 신한카드'를 발급한 고객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2회차 보험료부터 5%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0세부터 최대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크라운 치료 ▲레진 충전 치료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까지 보장한다. /김정산 기자

'예보한도' 상향 논의 막바지... 내달 매듭질까

(예금자보호)

해외 주요국 물가따라 인상 추세

예보로 인상 대출금리 영향 우려 5000만원 초과 예금도 1~2% 뿐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3년만에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예보는 다음달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정도까지 2~3단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과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다.

(국가별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1인당보호한도	24만달러	10만유로	8만5000파운드	1000만엔	10만 캐나다 달러	5000만원
GDP대비 보호한도 비율	3.3	0.9~5.8배	2.3배	2.3배	1.4배	1.2배

◆ 싱가포르·홍콩 한도 상향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려는 이유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187만원으로 2001년 약 1492만원 보다 2.8배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1인당 GDP는 441만엔(3958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00만엔(8976만원)으로 2.3배, 캐나다는 1인당 GDP가 7만2580달러(7117만원) 예금보호한도는 10만캐나다달러(9806만원)로 1.4배다. 우리나라가 1.2배로 훨씬 낮다.

여기에 일부 국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싱가포르의 예금자보호한도를 7만

5000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향시 전액 보호되는 예금자비율은 89%에서 91%로 확대된다. 홍콩도 예금자보호한도를 50만에서 80만홍콩 달러로 높인다.

◆ 5000만원 이상 예금 1~2% 불과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율이 올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사태를 대비해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를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쳐 책정하

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을 비롯해 예보료가 포함된다. 예보료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향 필요성을 낮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8.1%다. 국제예금권고치 9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건 예금액이 5000만원~1억원 이하인 경우"라며 "해당하는 예금자는 1~2%에 불과해 일부 상위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사고 피해 1.1조... 80% 내부직원 소행

(최근 5년간)

올 은행 직원 사고만 585억 달해 내부통제 실질적 준수 방안 시급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준수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864억원 규모로 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총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건수보다 금액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경우

건당 사고규모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가 59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 6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이 1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등이다.

특히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사고 금액도 벌써 585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경우 회수율도 낮다. 은행에서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21억원으로 11%에 그쳤다. 전체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회수율 43%를 크게 밑돈다.

회수율은 업권별로 보면 보험(60%, 188억원), 저축은행(57%, 118억원), 금융투자(53%, 3156억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사 국외지점, 외인 대출채권 부실시 해외 양도 가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외인프라투자 시 인수한 해외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국외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경우에도 대출채권을 외국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재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전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받고 연체된 경우, 불법 추심기관 등으로 채권을 팔아 추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법에는 채권 양도기관에 외국 금융회사가 언급돼 있지 않고, 양도를 제한하는 채권유형, 차주유형도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개인·법인)의 경우 대출채권을 외

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했다. 한국 금융회사 국외지점의 경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해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거주자인 차주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법인이 해외 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나유리 기자

신보, 中소 안정 지원 명절 전후 3.6조 규모 매출채권보험 인수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대금 미회수에 따른 연쇄 부도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전후로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1997년 중소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보험체제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속속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신용보험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영업조직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1조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및 18개 기초자치단체, 신한은행과의 보험료지원 협약을 통해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해 보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해 연쇄도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차, 내달 '인증 중고차' 판매 중고차시장 '新성장기' 맞이하나

완성차업체 중고차사업 진출 속도
기존 업체들 품질관리 등 대응 나서
시장 규모 연 7%대 고성장 전망

모빌리티 시장이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 조짐이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중고차와 렌터카 업체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과 경남 양산에 중고차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019년 중고차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꾸준히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오랜 유예 기간도 거쳤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파는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인증 중고차'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시장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도 최근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상태다. 이미 KG모빌리티보다 규모가 큰 수입차 업체도 무리 없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만

큼,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와 품질 관리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상품성과는 다른 이유로 지나치게 '값가'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중고차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5년, 10만km 이내 중고차만 취급할 예정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인증 중고차를 매입하고 있다. 판매 규모도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증중고차가 마케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때문에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체 실적이 높이기 보다는 중고차 시장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다.

하나증권은 '모빌리티, 시장 재편의 기회를 보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고차 시장이 연 7%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고차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가,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카와 새로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는 롯데렌탈을 관심종목으로 지목하고 목표주가도 상향 조정했다.

중고차업계에서도 경쟁력 제고하며 기회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당초 현대차 중고차를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차종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장에 대해 글로벌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을 차별화했다. 다른 중고차 업계와 함께 라이브 쇼핑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요를 위한 전략도 이어간다.

중고차업계가 모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신뢰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7년부터 운영한 실매물 중고차 플랫폼 '코리아카마켓' 알리기에 나선 가운데 장마철에는 침수차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소통 노력도 지속 중이다.

중고차 성장은 렌터카로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다. 렌터카 업체가 중고차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지만, 중고차와 같이 신차의 대안이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중고차 시장 확대에 차량을 매각하려는 소비자들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부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창범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현충탑 분향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경협, 본격 출범... 전방위 조직쇄신 착수

산자부 기관명·정관변경 승인
김창범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로 출범한다. 이름은 물론 조직을 재 정비하고 전방위적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경협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관명 및 정관변경 등 승인신청 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경협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한경협은 1961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주도해 설립됐다. 1968년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55년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며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쇄신안을 임시 총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했던 4대그룹 계열사들도 대부분 복귀했다. 주무 관청인 산업부가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우선 신임 상근 부회장으로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하면서 첫 발걸음을 뒀다. 전경련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한경연 원장을 겸임하며 실무를 추진하는 핵심 자리였지만, 김병준 상근 고문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에는 공백으로 남겨뒀던 2월 권태신 전 상근부회장이 퇴임한 후에는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김 부회장은 주요 경제단체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외교 관료 출신이다. 2021년 현대차 자문역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 관련 경력이 없다. 1981년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이전비서관과 주벨기에 및 유럽연합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세계에서는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한경협은 김 부회장이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계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류진 회장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류 회장이 첫 공식 행사를 통해 한경협 행보를 본격화했다. 18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 대통령과 함께 수출 정책을 펼치고 무역협화장 등을 역임한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전경련 부회장 등을 지낸 고(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했다.

류 회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을 받들어 G7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국 경제 글로벌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한경협 핵심 철학인 '위국헌신'과 '기업보국'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은 순국선열과 선배 경제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찾아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G7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경협은 산업부 허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쇄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명뿐 아니라 조직 개편과 윤리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 중이다.

/김재웅 기자 juk@

LS마린솔루션, 케이블 사업 등 실적·수주 '날개'

비금도 해저 케이블 매설 포설 계약
아태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비금도 해저 케이블 매설 계약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마린솔루션은 지난달 29일 LS전선과 '비금도 해저 연계 사업'의 포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과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서 전력케이블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LS전선이 올 1월 턴키(통합발주)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체 프로젝트 중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는 포설에 참여한다. 해저케이블 전문 포설선 GL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2030이 투입되며, 계약 금액은 30억원이다.

GL2030은 선박위치정밀제어(DP·Dynamic Position)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설의 정확성을 높이고, 바람과 높은 파고 등 기후 변화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금도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작년 매

출(428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130억원의 고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매출 265억원, 영업이익 70억원, 순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20년래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수주 역시 상반기에만 600억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매출(428억원)을 150% 가까이 넘어섰다. 국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본격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적과 수주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7800~7900원이던 주가는 현재 1만1000원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웅 기자

기아, '위블 비즈' 운영지역 확대

기아가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의 운영 지역 확대에 나선다.

기아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를 기존 경기도 화성시, 광명시, 경상남도에도 이어 강원도 홍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위블 비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해진 업무시간 동안 전기차를 구독해 평

일 업무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친환경 공유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자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홍천군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상인,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업,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두산에너지빌리티, 서부발전 기술교류 MOU

발전소 운영 최적화 상호협력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서부발전과 김포열병합 설비안정화 및 태안 IGCC 책임정비를 위한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15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두 회사는 김포 열병합발전소와 태안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소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약속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개 발전소 운영 주체로서 각 설비



15일 경기도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김포열병합 설비안정화 및 태안 IGCC 책임정비를 위한 기술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 후 한국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왼쪽),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연인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소 성능 및 설비 안정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대·중견기업,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41개사 역대 최대

동반성장지수, 214개사 평가 결과 우수 62곳, 양호 73곳, 보통 23곳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표 신설

214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41개사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스, 텐스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심텍, 에스트라오 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 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SNT모티브 9개사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14개사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41개사를 비롯해 ‘우수’ 62개사, ‘양호’ 73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9개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동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공표를 유예



1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오영교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동반성장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했다.

‘최우수’ 등급 41개사에는 ‘우수’를 받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공표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3개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를 받아 명예기업에 오른 기업은 다음 연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도 ‘최우수’로 인정하고,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가운데 ‘최우수 명예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12년 연속으로 가장 높

은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9년), LG화학(8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7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6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5년), DL이앤씨, 삼성물산(건설부문),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4년),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파리크라상, 현대위아, GS건설(3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공표시 등급

별 대·중견기업을 구분해 공표한 결과 대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급 비중이 매우 높았다”면서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을 많이 받아 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동반위 역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표대상 214개사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 점수는 66.2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통신(92.41)과 광고(83.9)가 80점을 넘으며 상위권을 차지했고, 제조업(62.18)과 식품업

(63.94)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총 100점인 동반성장 종합평가는 거래 중소기업의 체감도조사(70점)와 대기업 실적평가(30점)를 각각 합산해 산출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년도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1·2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 지수를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내년에 공표하는 ‘2023년도 평가’에선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원’ 지표를 신설·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해 산업 전반에 동반성장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 이하 자율규제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유봉석(왼쪽부터)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과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최남철 연세대 교수, 권현영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혜진 한양대 교수, 김지영 성균관대 교수, 손지운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LG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 EPD 인증 획득

글로벌 가전업체 냉장고 중 최초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가 지난 14일 글로벌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인증 ‘인터내셔널 EPD’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가전업체의 냉장고 중 첫 인터내셔널 EPD 인증이다. EPD는 제품의 생산, 운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표시하는 제도다.

EPD 홈페이지는 국제 규격에 따라 측정된 제품의 환경 영향 수치를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터내셔널 EPD를 획득한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LG전자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소기업계, 국세청에 18건 세정지원 과제 건의

중기중앙회, 김정장 초청 간담회 김기문 회장 “소통창구 마련하자” 김정장 “도움되는 세정환경 조성”

중소기업계가 기업의 유후자금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내국 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개인투자조합 우선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김창기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국세청에 적극 반영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KT ‘디지털인재 리더스 클럽’ 1호 선정

KT는 정부로부터 디지털 인재 양성 기업으로 인증받아 ‘디지털인재리더스 클럽’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리더스 클럽은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혁신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미래 사업

을 이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정 설계-교육-채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번 2023년 리더스 클럽에는 디지털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인 국내 다수 기업이 도전한 가운데 KT를 포함한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가스 관계사와 헌혈 캠페인

SK가스는 SK디스크버리 및 산하 3개 관계사와 함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오는 18일까지 판교에 위치한 SK디스크버리, SK가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구성원이 헌혈에 직접 참여하거나 헌혈증을 기증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차전지 테마주 미끄럼틀... 공매도에 추락하는 '에코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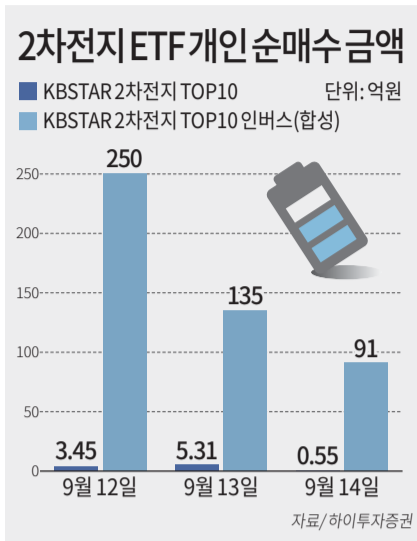
주가조정 장기화 등 공매도 급증 에코프로, 7월초 공매도 3.4만주 "예고했던 업황 부진 확인 시기" 개미들 하락 배팅 ETF 인기몰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2차전지 테마주들의 주가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공매도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2차전지주에 대한 지지심리 위축과 더불어 업황 부진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하락 배팅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2차전지 테마주 미끄럼틀... 공매도 집중돼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형제주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이달에 들어서만 28.48%, 13.71%씩 하락했다. '황제주'를 내려놓은 에코프로의 경우, 공매도 비율도 폭등하고 있다. 에코프로의 7월 초 공매도 물량은 3만6346주로 거래량의 1.23%에 불과했지만, 지난 15일에는 9만9597주를 기록하면서 거래량의 10.48%를 차지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역사적 약세장, 예고했던 2차전지 업황 부진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예고됐던 부진한 업황에 대한 기조가 유



지되면서 10월 초 잠정실적에서 업황 부진이 확인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차전지는 지난 7월에도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 조정을 겪었다. 당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에 공격적인 순매수 태도를 보이며 숏커버(빌린 주식을 되갚는 매수)가 아닌 숏스퀴즈로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했다. 숏스퀴즈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주춤했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상승 압력을 받아 고점을 조금 더 유지했다.

◆2차전지 관련 ETF 손실 확대... 하락 배팅 ETF는 인기몰이

2차전지 종목의 주가 조정이 지속되면서 관련 ETF들의 손실도 확대되고 있다. 2차전지 대표 상장지수펀드(ETF)로 꼽히는 'TIGER 2차전지테마' ETF 구성종목(33개)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2개월만에 약 90조가 증발해 주목된다. 지난 7월 26일 479조3474억원에서 이달 15일 390조3272억원으로 약

18.5%(89조202억원)가 사라졌다.

반면, 2차전지 하락에 배팅하는 KB자산운용의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는 지난 12일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이후 이들 간은 2차전지 하락과 함께 매수했다면 14일은 주가가 반등했음에도 개인매수가 이어졌다"며 "같은 날 상장한 'KBSTAR 2차전지TOP10'과 비교해도 2차전지 테마 하락에 배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2일 KB자산운용에서는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뿐만 아니라 'KBSTAR 2차전지TOP10' ETF도 함께 상장됐지만 희비가 교차했다. 'KBSTAR 2차전지TOP10' ETF는 2차전지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정방향 상품이다. 2차전지 인버스 상품인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는 상장 첫날부터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약 461억 원 순매수했지만, 'KBSTAR 2차전지TOP10' ETF는 1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차이가 벌어졌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연초 이후 지속된 2차전지 관련주 랠리 속에서 상승에 대한 부담과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주가의 상승과 조정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헤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양방향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한자산운용, 인덱스 펀드 라인업 확대

장기투자시 복리효과 최대

신한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인덱스 펀드의 상품 라인업과 판매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에 이어 '신한미국나스닥100인덱스펀드'를 선보였다.

신한미국인덱스펀드 시리즈는 미국 대표지수를 장기투자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품이다.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로 장기투자시 복리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한 환헤지형(H)과 환율의 등락이 성과로 연결되는 환노출형(UH) 상품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해외투자형 상품 중 가장 짧은 환매주기(5영업일)를 적용했다.

실제 성과로도 경쟁력이 입증됐다. 지난 6월 8일 설정된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H)'의 3개월 성과는 지난 15일 기준 2.17%로 경쟁상품으로 볼 수 있는 S&P500 ETF를 최대0.83%포인트(p) 앞질렀다.

'신한미국나스닥100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나스닥100 지수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100개의 혁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펀드가 추종하는 나스닥100 지수의 장기성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12년간 누적수익률은 574%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

서울, 전반적 고르게 상승 횡보수준

올해 들어 전국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아파트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어 횡보수준의 변화만을 기록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아파트 가격 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니계수는 0.441포인트(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간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10월 0.462포인트(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들었던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시기로 해석된다. 이후 올해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다.

/김대환 기자 kdh@

서울 강남·문정 등 뛰어난 입지에 '청약열풍'

문정동 9월 말 296세대 '집중'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강남 3구 4곳 분양 연기 확실히

연내 분양 예정된 서울 강남 3구와 강동·동대문·마포 등 인기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3구에서는 9월 말 분양이 확실한 296세대의 문정동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북에선 이달 분양 예정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가 강북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로또 단지'로 통하는 강남 3구는 당초 분양 계획을 밝힌 9곳 중 4곳의 분양 연기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달 말 강남권에서 처음 분양에 나서는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에 주목할 만 하다. 3호선 경찰병원역 및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과 가까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문정동 일대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단지다. 일반에 분양되는 가구는 296곳에 불과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로 평당 분양가는 3582만원으로 책정돼, 전용 59m 기준 분양가가 9억 30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9월 분양한 문정래



이달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 조감도.

미안이 평당 3779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등 하반기 청약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8일 "올해 이미 청약을 했던 서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6대 1 정도를 기록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서울에서 37개 단지, 총 3만134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940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강북 지역의 분양 중 가장 최대어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총 4321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1641가구이다.

강동구에서도 4개의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동구 일대는 최근 최대 유망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 중에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강남4구'로까지 불리고 있다.

670가구 일반 분양을 앞둔 '더샵강동센트럴시티', 572가구 분양이 예정된 '둔촌현대1차리모델링', 535가구를 분양할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77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천호역마에스트로' 등이 청약예정이다.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성동구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빠르면 다음달 성동구 용답동에서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특히 청계리버뷰자이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1670가구로, 일반분양 물량도 797가구로 다른 단지 대비 많다.

마포에서도 1101가구의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항공권 취소 수수료 414만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공정위

3년간 추석연휴 전후 피해접수 급증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총 953건
택배, 수요 몰려... 시간두고 이용을
훼손 우려엔 '파손주의' 문구 표기를

A씨는 여행을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를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S&P 신용등급 'AA' 유지

독자신용등급 한단계 상향 'BB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P(S&P)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 최종신용등급 AA로 기존등급을 유지하고 독자신용등급은 한 단계 상향한 BBB+를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S&P를 통해서 국제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직전평가에서 AA를 받았으며 독자신용등급은 BBB를 취득한 바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받은 AA는 우리나라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안정적 투자등급'을 의미한다. 특히 독자신용등급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회사의 독자 신용도를 의미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기존 BBB 등급에서 국내 공기업 중 최고 수준인 BBB+로 한 단계 상향했다.

공사는 최근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공사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과 부채감축 계획 등이 이번 독자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국제신용등급 상향은 공항 운영 정상화와 재무건정성 및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인천공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과를 높이 평가 받은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결점 공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유망 스타트업 4곳,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무협·산은, 미국에 사절단 파견
샌프란시스코 '드림포스' 참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사와 파트너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 진출을 타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일~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수상한 '모픽'(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키토코에이아이'(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조인앤조인'(비건 푸드테크 기업), 'Kabuk'(여행 구독 플랫폼) 등 4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해 AI·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한국무역협회가 KDB산업은행과 공동으로 11일~1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파견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이 KDB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무협

또 KDB 산업은행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KDB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투자사들은 실리콘밸리 현지 실정에 맞는 IR기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추후 해당 산업별 전문 투자사와의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VC Riverwood Capital 존 양 부대표, Story Capital 저스틴 남 대표, Ceeya 박기상 대표, Exaltitude

의진리 대표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과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모픽 신창봉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혁신 기술의 잣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사절단 참가 경험을 살려 실리콘밸리에서 당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전력 차기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

한국전력공사가 김동철 전 의원(사진)을 차기 사장 선임한다.

18일 오전 11시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동철 전 국회의원(사진)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전 의원을 사장 후보로 단수추천했으며, 김 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 되는 셈이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1995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로 광주 광산구에서 4선(17대~20



대)을 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등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호남 출신 정치권 인사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했다. 민주당 권노갑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광주 광산구에서만 4선(17~20대)을 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허정윤 기자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한 가치 '일·삶 균형'

고용정보원, 직업가치관 검사
50대 이상은 '직업안정' 1순위

40대 이하 성인과 대학생 등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은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워크넷의 직업가치관검사를 분석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이 5점 만점에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안정(4.09)'과 '경제적 보상(4.07)' 순이다.

다만 조사 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

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1순위가 일과 삶의 균형(4.36, 4.31), 2순위가 경제적 보상(4.24, 4.11), 3순위가 직업안정(4.16, 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대학생 제외)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4.14), 직업안정(4.06), 경제적 보상(3.98)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1순위에 일과 삶의 균형, 2순위에 경제적 보상을 꼽았다. 30~40대도 일과 삶의 균형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2순위는 직업안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직업안정이 1순위였다.

/김연세 기자 kys@

17개국 참여 '세계어촌대회' 오늘 개막

해수부,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9~2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17개국의 장·차관급

대표단 및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가한다.

개막행사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퍼슨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누엘 바라지 어업양식국장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울산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역 거듭날 것”

지방시대 울산 이상 선포식
위원회 20명 위촉과 선언문 등
비전·4대 목표·5대 추진전략 구성



울산시 민선8기 시정 비전 디자인

울산시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지방시대 울산 이상(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학,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업·금융·언론·방송·문화·예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축하공연, 지방시대 출범 영상 시청,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시대 울산 선언문 낭독 및 전달, 울산시 지방시대 이상과 전략 설

명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으로 위원들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지방시대 울산 선언문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량 결집,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문화관광도시 및 탄소중립 친환경도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세계적인 대

학 교육 기반 구축과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한 울산시 지방시대 이상과 전략은 울산시 비전, 4대 목표, 5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울산시의 비전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로 선정됐다.

4대 목표는 ▲울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 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

기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다.

5대 추진전략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생활자치 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 체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기반(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의료·보건·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생태자원 보전이다.

김두겸 시장은 “산업화의 역군임을 자처해온 우리 울산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울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중기연구-부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기연구원은 18일 오후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부산 중소·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부산 중소·벤처기업 전망, 성장지원 전략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공유 ▲부산 중소·벤처기업 발전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연구 협력 ▲부산 조선포양 ICT 융합 중소·벤처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모색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보성군, 정비사업비 358억 확보 별교 봉림지구 침수 해소 나선다

행안부 주관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129억 절감

보성군은 별교읍 봉림지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대규모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별교읍 봉림지구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필요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피력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예산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129억 원의 사업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별교봉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 ▲강변 저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1개소) 및 증설(1개소), ▲유수지 증설(1개소), ▲우수관로 1.8km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변저수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별교읍 시가지와 봉림리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해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지난 17일 오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령군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건 보유

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경북도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지난 17일 오후(사우디아라비아 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5월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권고’를 받아 등재가 유력시됐고, 이번에 최종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유네스코 세계

이번에 등재 결정된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가야연맹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전남도,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 5곳 소개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등

전라남도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고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견고 싶은 숲길’을 주제로 시군 공모를 추진, 경관·산림·등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단풍·향기 등 가을철 정취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숲길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에 영예를 안았고, 영암 백룡산 숲길과 곡성 대항강 둘레길에 각각 최우수 숲길에, 장성 편백나무 숲 트레킹길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사색의 숲길에 우수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유마사 단풍숲길 4km는 섬진 7지맥의 한 봉우리로 백야산의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동북천을 앞에 두고 멈춰선 곳이다. 우암담의 담수와 함께 삼면이



가을철 견고 싶은 길 중 ‘대상’을 받은 ‘화순 모후산 유마사 단풍숲길’

/전남도

푸른 물줄기로 둘러싸여 멀리 무등산, 조계산, 백야산을 조망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계절별로 5개 소씩 견고 싶은 숲길 20개소를 발굴해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숲길로 조성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본궤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설명회

개발연구원(KDI)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29일 민간투자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로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18일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오는 25일 사하구 제2청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총사업비 조정, 사업 시행 조건, 시설 규모, 요구사항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계획 고시를 위해 시는 한국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작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본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공영흡소핑

대구·경북 코칭상담 참여자 모집

공영흡소핑이 오는 11월 대구·경북지역 혁신기업제품 코칭 상담회를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이번 상담회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흡소핑 MD 등의 전문 코칭을 통해 지역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판매까지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이달 광주·전남에 이어 11월에는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펼친다.

/김승호 기자

울산시

지방채 1300억 일시 상환

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가운데 1700억원은 2022년(72억원), 2023년 상반기(98억원)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양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39억여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영양군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영양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에는 공영(지하)주차장 및 생태공원, 맞이방 등을 조성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동아오츠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비타민B,C 별꽃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별꽃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2, B6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관람한다 서울시, 3만석 규모 돐구장 건립

오세훈 시장, 토론토·뉴욕 방문
잠실에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와
수변생태문화공간 조성 구체화

서울시가 잠실에 세계적인 수준의 돐구장과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1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해 잠실 일대에 돐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전시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찾은 로저스센터는 약 4만 1000석을 갖춘 돐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과 연계 조성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시는 잠실운동장·마이스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와 돐구장 건립을 구체화하는 중으로, 국제경기 유치 가능한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뉴욕 자비츠 컨벤션센터도 방문한다. 맨해튼 서부, 허드슨강 인근에 위치한 자비츠센터의 전시면적은 약 7.8만㎡다. 센터는 전시·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의 관광·관광산업, 숙박·상업시설 활성화에 기여, 뉴욕시 전체에 연간 2조4000억여원의



잠실 전시컨벤션 센터 개발안 한강변 조감도. /서울시

매출과 약 1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잠실에 들어설 전시 컨벤션센터는 전시 면적 약 9만㎡, 회의 면적 2만여㎡ 규모로 건립된다. 한강 경관을 활용해 매력적인 조망을 갖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돐 야구장, 전시 컨벤션센터, 업무·상업·숙박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실시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이날 오 시장은 산업화로 고립됐던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재편한 '토론토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지를 방문해 한강과 탄천 수변을 활용, 잠실 일대에 매

력적인 수변 생태·여가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은 활용 가치가 낮은 '토론토 온타리오호' 주변을 생활·업무·여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센트럴 워터프론트, 이스트 베이프론트, 웨스트 돈 랜즈, 포트 랜즈 등 크게 4개 구역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한강과 탄천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 본류~탄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자연 호안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접근성 개선 ▲매력적인 수변여가 문화공간 설치 등 기본 설계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에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가장 절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일반 서울시민比 고용률 ↓ 실업률 ↑
자살충동 2배 이상... 정신건강 취약

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 대비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 실업률은 8.8%였다. 일반 서울시민의 고용률은 59.2%, 실업률은 4.8%로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 각각 5.8%포인트 높고, 4%포인트 낮았다.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서울시민에 비해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남한 사회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했고,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18일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672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이 3080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대 청년층 2358명(35.1%), 60대 이상 1055명(15.7%), 0~19세 이하 230명(3.4%) 순이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국 북한이탈주민(이하 전국)보다 높았다. 2021년 기준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주택)에 사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67.2%였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9.3%포인트 높고, 자가에 사는 비율은 11.3%포인트 낮았다.

2021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85.3%는 남한에서 자신의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했다. 2021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고, 중하층(34%), 최하층(12.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은 일반시민과 비교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017~2021년 5년 평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충동 경험은 13.8%로, 동 기간 전국 13.4%와 비교해 0.4%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 충동 경험 비중이 5.2%(2020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자살 충동 경험의 주요 원인은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가 31.3%로 1위였다. '경제적 어려움'(28.2%), '외로움과 고독'(16.5%)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남한 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며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견학, 단기 인턴, 특강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채용 특별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의 채용 유인을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에듀테크, 공교육 도입·수출 활성화 박차

교육부, 에듀테크 진흥방안
하반기 디지털 선도교사 집중 양성
'K-에듀테크' 브랜드 개발해 홍보

교육부가 공교육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도입하고, 'K-에듀테크'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가칭 '에듀테크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결합한 산업을 뜻한다. 에듀테크 산업은 디지털 혁명의 도래, 코로나19와 맞물려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7조3000억원 규모인 에듀테크 산업 시장이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 디지털 선도교사 양성...SW 적극 활용

교육부는 이런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교육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이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에



장상운 교육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에듀테크 진흥방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듀테크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가 에듀테크를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는 등 조달 체계를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교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아이에담(AIE DAP) 마스터교원을 700명에서 2025년 1500명, 같은 기간 터치(TOUCH) 교사단을 4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선도 교사들은 학교에서 '디지털 장학사'로 활동하게 된다.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보급은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6월 기준 초·중·고 학생 전체 58% 수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 전까지 학생 1명이 1개의 디지털 기기를 갖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 관련법 추진...“K-에듀테크” 브랜드 개발, 수출

정부는 현시점에 맞는 에듀테크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에듀테크 진흥법'을 마련하고 에듀테크 산업에 맞는 실태조사 체계, 투자자치평가모형도 개발한다. 현재 '이러닝산업법', '원격교육법' 등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만, 공교육과 에듀테크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K-에듀테크'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브랜드K), 한류 홍보(한류박람회 등)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국가별로 현지화하고 교사 교류, 교육정책가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에듀테크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이슈 논의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상시적 민·관 네트워크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h@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1436원 확정

(시간당)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39만원

서울시는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공공·민간간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157원과 비교해 2.5%(279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9만 124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 총 1만 5000여 명이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바이오 컨퍼런스·전시 동시 진행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가 주관하며 한국생물공학학회(KSBB)가 운영하는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Big C 2023)'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바이오 분야 전문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콘퍼런스 형태로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빈 생명과학대

학교의 Nicole Borth 교수, 포스텍 임신혁 교수, 싱가포르 국책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청 A*STAR의 기초장연을 비롯하여 '단백질 및 항체 치료' 등 6개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

동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참가하여 최신 바이오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참가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계열분리 수순?... 메가마트 신동익, 농심 지분 잇단 매도

〈부회장〉

신 부회장, 2월부터 7차례 팔아 자산 8675억 메가마트 분리면 농심그룹, 대기업집단서 빠져 농심 “계열분리 계획은 없어”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메가마트

농심그룹 창업주 고(故) 신준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 신동익의 메가마트 부회장이 농심 지분을 처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부회장은 지난 5일 농심 주식 3356주를 장내매도했다. 처분단가는 45만5483원이다. 이번 매도로 신 부회장의 농심 주식수는 12만4056주에서 12만700주로 축소됐다.

앞서 올해 2월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농심 지분을 장내매도 하기도 했다. 총 277만3500주로, 각 종가를 고려했을 때 총 액수는 60억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신 부회장의 농심 지분율은 올해 2월초 2.23%에 달했지만, 수차례의 매도 수순을 거치며 1.98%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신 부회장의 잇단 농심 주식 처분이 계열사 분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집단지업(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공시외무 대상으로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형제간 계열분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농심그룹은 농심홀딩스를 지배 회사로 농심, 율촌화학 등 상장사 3개, 비상장사 47개 등 총 5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문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포장재 기업인 율촌화학은 지난해 매출 48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225억원을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로 올렸다.

농심태경과 엔디에스, 농심미분, 농심기획 등 다수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20~60%에 달한다. 그동안 공정

위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심그룹은 장남 신동원 회장이 농심, 차남 신동운 회장이 율촌화학, 3남 신동의 부회장이 지난해 6월부터 농심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메가마트 대표이사직을 각각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8675억원인 메가마트를 계열분리할 경우 농심 그룹은 다시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다. 메가마트는 지주사인 농심홀딩스와 지분관계가 없어 계열분리에 걸림돌이 없다.

신 부회장은 2021년 3월 농심홀딩스 사내이사직을 내려놨으며 농심홀딩스 지분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농심 측은 “계열 분리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최빛나·신원선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우자조금 ‘소프라이즈’ 한우세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추석 맞이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알리고 있다.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손진영 기자 son@

청정원 호밍스 우삼겹 스키야키 선포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상 청정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과 식품업계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로 가정간편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청정원의 간편식 전문 브랜드 ‘호밍스(Home:ings)’는 신제품 ‘우삼겹 스키야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정원은 ‘우삼겹 스키야키’를 통해 한식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메인요리를 간편식으로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겨냥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우삼겹 스키야키’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물 요리로, 달큰한 간장 베이스를 활용해 스키야키 전골의 맛을 재현했다. 말린 가다랑어를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특징이며 우삼겹만 더했을 뿐만 아니라 청경채, 배추, 숙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채소도 풍성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U ‘추석 간편식’ 9종 준비

CU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간편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가성비 높은 추석 간편식을 19일부터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CU가 이번에 내놓은 추석 간편식은 총 9종으로 훈추족으로 위한 한가위 도시락 2종,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냉동 간편식 7종이다. 명절 연휴 수요가 높은 전류 등은 고물가 시대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1 행사를 진행한다.

한가위 도시락은 돼지고기 정식 도시락(6900원)과 나훈자 모듬전 도시락(5900원)으로 추석 연휴 미귀성 1인 가구를 위해 알차고 푸짐한 구성을 자랑한다.

돼지고기 정식 도시락은 버크셔K 품종의 돼지고기 구이와 다양한 전과 밑반찬을 담은 상품이다. 버크셔K는 국내 육종 고품질 돼지고기로 사브사브로도 먹을 만큼 육질이 부드럽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최빛나 기자

간편식·해외여행 등 ‘인기’ 추석 쇼핑키워드 #명절해방

G마켓, 최근 열흘간 판매동향 분석 축산가공품 30%, 즉석밥 46% 성장 해외여행 상품 348%, 국내 14% ↑

G마켓이 18일 추석을 앞둔 최근 열흘(4일~13일) 간 판매동향을 분석해 올해 한가위 쇼핑 키워드로 ‘명절해방’을 제시했다.

먼저, 음식은 ‘간편식’이 인기다. 지난해 추석 프로모션 동기 대비(22/8/15-8/24) ▲축산가공식품 30% ▲간편조리식품 15% ▲즉석밥/컵밥 46% 등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한가위 빅세일’에서도 3일 만에 ‘피코크 떡갈비’가 2억3000만원, ‘닭갈비’가 1억4000만원, 추어탕이 9000만원, ‘프레시지 LA갈비’가 5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해 식품 베스트 상품 상위 랭킹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은 제품수산물을 찾는 수요가 많았다. 행사 3일차 기준, 태안 왕새우(2억3000만원), 완도산 활전복(2억1000만원), 태안 활꽃게(2억원) 등이 베스트 순위를 차지했다.

최대 12일을 쓸 수 있는 긴 연휴의 영

향으로 여행수요도 급증했다. 전체 여행상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128%) 증가한 가운데 해외여행은 348%, 국내여행은 14% 각각 올랐다. 한가위 빅세일 3일차 베스트 여행상품으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숙박권’이 2억8000만원을, ‘에버랜드 종일권’이 2억2000만원, ‘경주 더보문풀빌라 숙박권’이 5000만원,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이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추석 이 임박해, 연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여행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명절에 국한하지 않고 평소 필요했던 다양한 품목을 쇼핑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다.

전통적인 추석 풍경이 희미해진 ‘작은명절’ 분위기 속에도 쇼핑 지갑은 활짝 열렸다. 1인당 평균 구매액단가를 분석해 보니, 식품중가공식품은 28%, 건강식품 14%, 신선식품 6% 각각 증가했고, 유아동상품 중 의류는 21%, 패션잡화는 10% 증가했다. 이외, 여성이류(36%), 남성이류(6%), 여행상품(146%)이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최빛나 기자



김봉하 믹솔로지스트가 18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블랑 앤 블랑’ 캔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블랑 앤 블랑’ 캔커피 출시

믹솔로지스트 김봉하 대표와 협업

홈플러스는 국내대표믹솔로지스트(Mixologist) 김봉하와 협업해 음용과 휴대가 간편한 ‘블랑 앤 블랑’ 캔커피를 단독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캔커피는 국내 1세대 믹솔로지스트 김봉하 대표가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 바 ‘믹솔로지’의 시그니처 칵테일 ‘블랑 드 블랑’을 캔 타입으로 구현한 상품이다. 전국 홈플러스 점포에서 1캔 4500원, 3캔 9900원에 판매한다.

‘블랑 앤 블랑’은 라임과 샤인머스캣 향이 싱그럽고 아름다운 풍미를 선사한다. 라임의 상큼한 산미가 돋보이는

첫 맛에 이어 샤인머스캣과 화이트와인의 달콤함, 탄산의 청량감으로 마무리되는 깔끔한 끝 맛이 특징이다.

김봉하 믹솔로지스트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몰이를 했던 ‘얼그레이 하이볼’ 주재료인 ‘믹솔로지스 모기 얼그레이 시럽’의 개발자다. 그는 상품 개발 경험을 살려, ‘블랑 앤 블랑’ 개발 과정에서도 실제 칵테일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내기 위해 홈플러스바리어와 10회 이상의 사전 테스트를 거쳤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이트진로, 가을맞이 진로 컬러에디션 3종

진로가 가을을 맞아 진로에 색을 입혔다.

하이트진로는 가을 시즌을 반영한 ‘진로’의 컬러 에디션 3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하는 컬러의 진로를 찾는 재미를 통해 술자리에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젊은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진로 한정판은 주황, 노랑, 연두색의 컬러 라벨로 계절감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컬러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두꺼비 심볼을 더해 패

키지에 차별화를 주고 젊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진로와 컬러 에디션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제로슈거-진로의 초 짙은 맛과 16도의 순한 목넘김은 동일하다. 진로 컬러 에디션은 약한 달간 주요 음식점, 주점 등 유흥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쿠광, 월 5만2000원 캐시백 ‘와우카드’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연내 출시

쿠광이 4분기 내로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전월 실적 상관 없이 매월 쿠광에서 구매 시 4%(기본 적립 2%+추가 프로모션 2%), 쿠광 외 구매 시 1.2%(기본 적립 0.2%+추가 프로모션 1%)까지 적립할 수 있는 ‘쿠광 와우 카드’를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월 최대 5만2000원까지 되돌려 받아 적립률과 적립 한도 등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쿠광 와우 카드’는 와우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제휴카드로, 쿠광뿐 아니라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더라도 업계 최고 수준의 캐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 이탈리아 5개 주정부 입찰 수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유일한 80mg 용량으로 차별화
유럽서 직판 경험·노하우 영항
소아환자 대상 20mg 허가 앞둬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성분명 : 아달리무맙)가 이탈리아 입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 주요 5개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올 3분기 개최된 캠페냐(Campagna), 움브리아(Umbria), 피에몬테(Piemonte), 몰리제(Molise) 및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 주정부 입찰에 참여한 결과, 유플라이마가 낙찰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5개 주정부는 이탈리아 아달리무맙 시장의 약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유플라이마 공급이 시작된 가운데 상호 계약에 따라 주별로 1~3년간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올 1분기에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 및 베네

토(Veneto)주에서 개최된 아달리무맙 입찰에서도 유플라이마가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유일하게 80mg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별점이 시장 선점 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에서 기존 3개 제품을 직접판매(직판)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후속 제품 처방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올 상반기에만 54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매출을 반년 만에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쌓았다. 올 연말 소아환자

들을 대상으로 한 20mg 용량 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처방 확대 계획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원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탈리아 법인장은 “기존 제품들을 통해 입증된 커머셜 역량과 제품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입찰 수주 성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플라이마가 셀트리온의 유럽 매출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국가별 입찰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GC녹십자MS Dengue NS1 Ag 신속 진단키트 수출 허가

혈액 검체 통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



GC녹십자M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engue 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 ‘GENEDIA W Dengue NS1 Ag’ (사진)항원 테스트와 ‘GENEDIA W Dengue IgM/IgG Ab’의 항체 테스트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Dengue 진단키트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됐다. 혈액 검체를 통해 20분 이내에 Dengue를 진단할 수 있으며 4가지의 Dengue 바이러스 혈청형을 모두 진단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Dengue는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숲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열성질환이다. 치쿤구니야 등과 같이 다른 모기 매개 질병과 증상이 유사해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최근 지

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국제적으로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 전파 위험이 증가되어 방역과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중심으로 모기 매개 질환인 Dengue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수출용 허가 획득을 계기로 모기 매개 감염 바이러스 진단키트 시장에서의 빠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Dengue 이외 의도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후속 제품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콜마글로벌, ‘컨디션’으로 싱가포르 공략

베트남서 시장 개척 후 진출 이어가

을 보유하고 있다.

콜마글로벌이 베트남에서 숙취해소제·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컨디션’의 시장성을 확인한 가운데 싱가포르로 진출한다.

콜마글로벌 관계자는 “올해 가디언을 비롯해 싱가포르 내 주요 H&B 채널은 물론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영업망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콜마글로벌은 지난 4일 컨디션 브랜드 제품들을 싱가포르 최대 헬스앤뷰티(H&B) 매장인 가디언(Guardian)에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콜마글로벌은 동남아 최대 시장인 베트남에서 숙취해소제 컨디션을 연간 100만 병 이상 판매하고 있다. ‘숙취해소’라는 개념조차 없던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22년 매출 78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억원 매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출시 제품은 컨디션 음료, 컨디션 스틱, 싱가포르 현지 특성을 반영한 음료 컨디션 커투민패스트, 건강기능식품 컨디션 프로바이오 등이다. 가디언은 동남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테어리팜 그룹’이 지난 1967년 설립했으며 싱가포르 내에 12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

향후 콜마글로벌은 주변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에도 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NASH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최초 개시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DA-1241, 美 환자에 첫 투약
16주간 86명 대상... 효능·안정성 확인

최초의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 2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의 미국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상 2상은 DA-124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NASH 환자 86

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된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따르면 ‘DA-1241’은 GPR119 작용제 기전의 혁신 신약으로, 전임상에서 NASH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GPR119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GPCR)다. DA-1241은 GPR119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241 투여 후 간경화, 염증, 섬유화, 지질 대사 및 포도당 조절 등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

1241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 지난 8월 미국 임상시험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으며, 임상 대상자 스크리닝을 거쳐 첫 임상 환자 등록까지 마쳤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이번 임상을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동아쏘시오 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인 DA-1241을 비롯해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도 담당하고 있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관계자는 “DA-1726은 비만 및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1상 IND(임상시험용 신약)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고단백 결두부로 닭강정 재현

풀무원은 ‘고단백 결두부’로 닭고기의 질감을 모방한 ‘식물성 지구식단 결이 다른 큐브강정’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이 독자적 고유 기술로 구현한 고단백 결두부는 얇은 두부가 여러 겹 쌓인 결 형태다. 대두에서 추출한 두유를 냉각한 뒤 응고제를 넣고 냉동, 해동, 성형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일정한 짜임새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결이 다른 큐브강정’은 소스까지 식물성으로 만들어 식물성 식단 구성이 가능하다. 두가지 맛으로 ‘달콤소이’와 ‘매콤바베큐’가 있다. /이청하 기자

보령A&D메디칼, 가정용 혈압계 출시

UA-611플러스, 심방세동까지 측정
보령(구 보령제약)의 의료가기 전문 계열사 보령A&D메디칼은 스테디셀러 제품 ‘UA-611’의 성능을 대폭 향상한 가정용 혈압계 ‘UA-611플러스(PPlus)’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UA-611Plus는 이전 모델 대비 2배 증가한 60개의 메모리를 탑재함으로써, 60회까지 혈압기록 저장을 지원해 장기간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별개로 ‘소형 컵’로 교체할 수 있어 팔 둘레가 작은 여성과 아동·청소년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이 불규칙맥과만 측정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심방세동’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이뤄졌다. 심방세동이란 심장의 보조 펌프인 심방에 이상이 생겨 1분당 400~600회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이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해당 제품은 일본 A&D사와 지치대 학교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심방세동 감지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이세경 기자



정문목 동원푸드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전현제 더슬로우컴퍼니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푸드

동원푸드, 슬로우캘리와 식자재 공급 강화

110여개 가맹점에 150억 규모 공급

슬로우캘리는 지난 2018년 연남동 본점에서 시작해 가맹 사업 2년 만에 전국 110호점 출점을 기록한 포케 샐러드 전문점이다. 포케는 연어, 참치 등 수산물에 밥과 각종 채소, 견과류 등을 곁들인 슬로우캘리의 대표 메뉴다.

동원푸드가 더슬로우컴퍼니와 ‘식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동원푸드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하와이안 포케 샐러드 카페 브랜드 ‘슬로우캘리’를 운영하는 더슬로우컴퍼니와 식자재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푸드는 전국 110여개 슬로우캘리 가맹점에 연간 150억원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하게 됐다. /이청하 기자

한편 동원푸드는 산지구매,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로부터 고품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며, 직접 제조한 소스와 드레싱은 물론 가공식품과 비식품에 이르는 500여 종의 식자재를 취급하고 있다.



탤런트 이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LG엔솔, 인니서 첫 해외 봉사활동... '나눔문화' 전파

임직원 50명 참여... 주거환경 개선
"나눔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 해비타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카라왕시 와나자야 마을에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와 함께 인도네시아 카라왕(Karawang)시 와나자야(Wanajaya) 마을에서 임직원 50명이 참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5월부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카라왕시 와나자야 마을에서 건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터 한국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고 이번 활동을 준비해왔으며 이번이 첫 해외 봉사 활동이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와나자야

마을은 학교, 의료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주민 대부분 나무, 짚 등을 이용해 만든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은 현지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보수 건축활동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터 다지기, 골조작업, 벽돌쌓기 등 건축봉사를 진행하였으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에코블록(벽돌)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시설을 마련에 힘을 보탰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는 LG에너지솔루션 조직문화 6대 과제 중 하나"라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전달

에쓰오일은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18일 세종시 소재 소방청사에서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으로 4억 7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운데)와 소방청장 남화영(왼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이(오른쪽)가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롯데칠성음료, 장애인체육회 공식 후원

롯데칠성음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왼쪽)와 정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효성, 임직원·장애아동 가족 동반 여행

효성은 15일부터 17일까지 '2023년 효성·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2박3일 일정으로 임직원과 장애아동 가족 각 10가족이 참여했다.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와 휴천 소노벨 비발디파크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효성



기보,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증·성금 기탁

기보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기부한 헌혈증 200매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보 김영갑 이사(오른쪽)가 헌혈증과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 뉴욕 달린다

78차 유엔총회 주간 부산 홍보
"개최지 선정까지 최선 다할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을 달린다.

현대차그룹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78차 유엔(UN) 총회 고위급 주간엔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카 20대를 활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반토의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상회의 등이



부산엑스포를 알리는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미국 뉴욕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는 모습

열린다.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UN 총회에서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널리 알려 막판 유치전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종을 아트카 차량으로 선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엔 본부 인근 및 뉴

욕의 주요 명소 주변에서 아트카를 운행하면서 총회 참석 등을 위해 모인 각국 주요 인사들은 물론 뉴욕을 찾은 전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매력과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알린다.

이 외에도 뉴욕 맨해튼의 문화 예술 중심지인 미트캐피탈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제네시스 하우스와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타임스 스퀘어 광장 등에 아트카를 전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부산 유치를 위한 우호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K-컬처의 감성으로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표현한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이 주요 국제 행사 현장을 연이어 누비며 전 세계에 부산을 알리고 있다"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까지 부산 유치 열기 확산과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주택금융공사, 이환석 신임 부사장 임명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임 부사장으로 이환석(사진)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HF의 신임 이 부사장은 1991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정책기획국 팀장, 워싱턴 주재원, 금융통화위원회 실장,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부총재보를 역임했다.



이 부사장은 "한국은행에서 쌓아온 정책 수행 및 금융통화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노 엑시트' 캠페인

구자은 "임직원과 함께 마약근절 기여"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사진)이 마약 예방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구 회장은 최근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이 마약퇴치 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구 회장은 마약 범죄로 공동체를 파괴하며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LS임직원과 함께 기여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이용배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 제공"

(현대로템 사장)

현대로템은 18일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임직원들과 함께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마약근절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마약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받게 하는 만큼 근절의 위해 모두의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7 | 해질 / 1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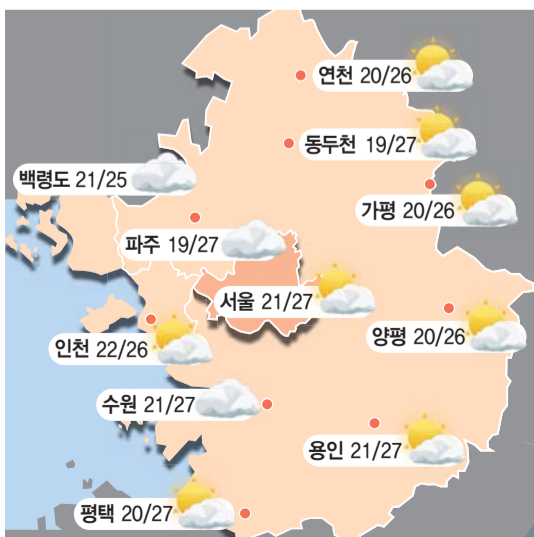
9월

19일 (화)
음력 : 8월 5일

수도권 날씨

21~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사

- ◆인사혁신처 ◇국장급 △인재채용국장 김성연
- ◆해양수산부 ◇국장급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강용석
- ◆신아일보 △편집국장 나원재 △경제부장 배태호

부음

▲ 진행자 씨 별세, 김금순(우리은행 대전 엑스포지점 차장)·김경래(엑스마크 이사) 씨 모친상, 김화영(대전CBS 보도제작국장장대우)씨 장모상, 고희진(엑스마크 대표)씨 시모상 = 18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044-863-4444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면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부서 회식이 끝났는데도 술자리를 더 갖자는 직원들의 요청을 뿌리친다. 또 다시 변함없는, 밤 늦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언제부턴가 자동문에 기대어 마치 스캔이라도 하듯 차창 밖의 밋밋한 야간 도시를 관찰한다. 그날 문득, 낡은 상가 윗층의 창문이 열리고, 백열등으로 환한 공간이 뻗어 드러난다.

‘셀 위 댄스’(1996년 개봉, 일본영화)의 주인공 스기야마 씨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춤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한국판 영화포스터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 에두아르드 C. 린드만. 독일-덴마크계 이민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마구간 청소부, 벽돌공장 노동자, 식료품 배달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22세에 미시간농업대학(현 미시간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수많은 지적인 자극을 받고, 형식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1학년 준비반을 거쳐 정규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성인교육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업적을 쌓았으며, 그가운데 바로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1926년 발행)’가 있다.

스기야마 씨와 린드만 선생님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물론, 린드만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1885년생으로 1953년에 타계하였으니 무려 43년 후의 영화다. 그렇지만 린드만 선생님이 얘기한 ‘성인교육의 의미’가 이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으리라. 린드만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성인학습은 ‘빵과 버터’ 단계를 지나면 언제 어디서나 문화적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 우리로 치면 ‘밥과 김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문화다. 성인교육은 무엇이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좋은 문학이라고 정해진 기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즐기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야말로 ‘셀 위 댄스’의 스기야마 씨인 셈이다.

린드만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만난 ‘농부 화가’의 이야기도 뜻깊다. 그는 농부를 천직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

림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꿈꾸었다.

어느날 성인교육기관의 한 독일인 교사가 농부의 열망을 알아보고, 미술수업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감을 맛보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린드만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는 먹고 살기 바빠 전혀 할 수 없었던 그의 품성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또한 “그의 단정한 그림에 너무도 매료되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고, 내가 여가의 산물에 값을 매기려 한다며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적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여가와 학습에서 찾아낸 모든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감정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린드만 선생님의 통찰은 더 나아간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예술이 결코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없다. 예술과 감상, 즐거움은 고유의 감각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성인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일 뿐이다.

(/한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기 지 수 첩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여야대표들이 갈등의 사안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모습이 어느샌가 볼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이 자리는 사법이 차지해 정치를 대신하고 있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를 맞이하며 결국 병원에 후송됐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그 시간에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복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갈등을 비롯해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단식 이전,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일 황 대표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대통령실은 무관심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 초반 조롱과 비난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단식에 조롱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정치적인 예의로서 정부여당에서는 단식장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 말만 전할 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정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길 바라본다. 민심을 받들고,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차이를 조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도 통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pathfinder@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는 법. **48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훨씬 낫다. **60년생** 종로에서 빵 맛과 한강 가서 분풀이. **72년생** 불이 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로 꺼야 한다. **84년생** 좋아도 싫어도 금방 표현하면 반드시 후회.
- 3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니 주의. **49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61년생** 마음이 우울하지만 자식이 웃음 일음. **7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 오는 격이다. **85년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말도록.
- 38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우선 모면하자. **74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 **86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 39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보자. **51년생** 성공을 원하면 사람 사귀에 능해야 한다. **63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서 하는 여행. **75년생** 주변과 다투지 마라. **87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 4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반드시 더러워지기 마련. **52년생** 미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 **64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언제나 도망가는 것은 자신이라는 걸 명심. **76년생** 음주주의. **88년생** 애써 한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음이다.
- 41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간다. **5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65년생** 상대전점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나 주의가 필요. **89년생** 음식섭취에 유의.
- 42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54년생** 허나를 뿌렸는데 세 개로 돌아온다. **66년생** 사소한 일로 일회일비하지 마라. **78년생** 운세가 상승할 때이니 재기에 성공. **90년생** 형제와 대화 중 불화를 조심.
- 43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55년생**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한 날. **6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 **91년생** 업무에 좋은 협력자가 생긴다.
- 44년생** 잘못이 있으면 오금이 저리는 법이니 세균 청결보라. **56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68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할 곳이 보인다. **80년생** 새 출발하는 시기. **92년생** 닭 닭한 개 지붕 쳐다보니 실력을 키우자.
- 4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갈등이 생긴다. **57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한다. **81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9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 46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올 것이다. **58년생** 무리하지 말고 능력과 형편에 맞출 것. **7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82년생** 이직해보야 오십보백보가 될 것인데. **94년생** 건물생심(見物生心)보다 현실을 파악.
- 47년생** 욕심 많은 사람은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59년생**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고 돼지를 사러 가야 한다. **7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83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라. **95년생** 필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김상희의 四季 풍수 길지



동향집 서향집 남향집 북향집이 있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남향집을 고를 것이다. 남향집을 고른 사람들에게 풍수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풍수를 몰라도 사람들은 별이 잘 드는 집을 고른다.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걸 체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별이 잘 드는 곳은 길지라고 할 수 있고 별이 잘 들면 밝고 따뜻하다. 그런 곳은 나무와 식물이 잘 자란다. 별에서 생성되는 기운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서 그렇다. 나무와 식물이 좋아하는 땅은 사람에게도 좋다.

좋은 터에 자리 잡으면 일이 잘 풀려나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오래된 경험에서 도출된 근거 있는 이론이다.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살고 있는 터였다. 해가 잘 들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구하기 편한 터를 찾는 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생존과 생활의 풍요를 결정했다. 즉 배산임수란 생존의 기본이다. 나무와 풀이 싱그럽게 자란다는 건 주변의 기가 좋다는 의미이다. 서울에는 예로부터 부자동네로 불리는 곳이 있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등이다.

서울이 아파트로 뒤덮이는 요즘에도 단독주택이 많고 여전히 부자 동네 소리를 듣는다. 남향으로 별이 잘 들고 산이 감싸 안고 있는 형세가 공통점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으면서도 푸른 숲이 무성하다. 좋은 기운이 모이는 요건을 갖췄다. 실제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길지가 풀고 있는 좋은 기운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 길지라고 불리는 곳은 밝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풍수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 길지를 찾는 건 누가 보아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길지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 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1			6			
		7	5		3	4		
	9						1	
5				3				4
	3		1	4			7	
1				6				9
	5							8
		4	7		2	9		
		3						

		8						7
5								2
7	4		5					9
	2	3		7		6	4	
	9		5	4			8	
	7	5		3		2	9	
2	7		6			1		8
6								4
	4							5

<http://argo9.com>

정답

1	4	2	9	6	9	8	7	8
8	9	6	2	8	2	4	1	9
9	8	2	1	4	8	6	9	2
6	8	9	2	9	2	8	4	1
2	2	8	4	9	1	9	8	6
4	9	1	8	8	6	2	2	9
2	1	8	9	2	8	9	6	4
8	6	4	8	1	9	2	9	2
9	2	9	6	2	4	1	8	8

9	9	6	2	1	2	8	4	8
4	2	2	9	8	8	6	1	9
8	8	1	6	9	4	2	9	2
1	6	2	8	8	9	9	2	4
2	8	8	4	2	9	9	6	1
9	4	9	1	2	6	8	2	8
6	1	8	8	9	2	4	9	2
2	9	4	2	6	8	1	8	9
8	2	9	9	4	1	2	8	6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보험은 사랑, 신념 실천하고 미래 주역에 아낌없는 투자 ‘더 나은 삶’ 만들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ABL생명

오는 2024년 ABL생명은 한국 시장 진출 70주년을 맞이한다. 1954년 국내 금융 시장에 첫발을 뗐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사업 방향은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ABL생명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험은 사랑’이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은 어린이들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의 주역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기부 성과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995년 9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서 28년간 약 25억원을 기부했다.

총 1966명의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2021년 기준 후원을 받은 아동 93%의 건강이 호전됐다. 어린이 51%는 검사비를 지원받아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 어린이재단 후원 10년째

지난 2013년 5월을 시작으로 어린이재단 세 곳과 제휴를 맺었다. 유력 사회복지기관인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3곳이다. 협약과 함께 회사 자체 기부 프로그램인 ‘메이크 어 도네이션 (Make a Donation)’ 운영을 시작했다.

메이크 어 도네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은 각 어린이재단과 연결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성한 기부금은 빠짐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올해까지 각 기관에 전달한 합산 기부액은 약 36억원이다.

굿네이버스와는 ‘희망나눔 방학교실’을 진행한다. 방학기간 중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방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미래와 희망’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의 ‘한 생



(위)사내 기부 프로그램 10주년을 맞아 ABL생명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BL생명 사랑의 봉사단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 실시하고 있다. /ABL생명

굿네이버스 등 어린이재단 3곳과 제휴... 합산기부 36억 설계사, 신계약 1건당 1000원, 임직원들 매월 기부 동참 30여년 어린이회장단에 금융교육... 누적 1만5000여명 어린이 중심 봉사 확대... 자립준비 청년에 1000만원 전달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송민용 ABL생명 최고 재무책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BL생명

명 살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세 프로그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 회사는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설계사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계약 1건을 체결할 때마다 1000원씩 기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전국 어린이회장 모아 금융교육

ABL생명은 전국 어린이회장단 중 신청자를 모아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50여명을 자사 연수원으로 초청한다. 지금까지 총 1만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금융교육과 함께하는 지도력 교육은 회장으로서는 역량을 키우는 ‘양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에는이형래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원로교사 겸 이화여대 겸임교수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해력’ 강의와 함께 ‘한국 홍보 전문가’로 불리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 등으로 캠프를 구성했다.

ABL생명 임직원도 교육 현장에 투입했다. 김현수 영업교육부 부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은재경 ABL생명 영업채널담당임원 전무는 “21세기의 리더는 모든 구성원의 다채로운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해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기부대상...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ABL생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나눔의 날’로 설정했다. ‘ABL생명 사랑의 봉사단’에 지원한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환경 정화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울러 어린이뿐 아니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나눔, 김장나눔 등의 봉사활동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을 청소년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추가 결연을 맺었다. 복지관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7월 단행한 나눔의 날 또한 청소년 대상 봉사로 기획했다. 강동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인 주몽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주몽재활원은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과 재활훈련을 지원한다. 지난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10여명은 시설 내부의 경사로,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백악관, 설리반-왕이의 몰타미-중 회담사실 발표 “양국관계 유지 책임”
▲美 연준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금주 G20 절반 금리 결정 /사진 뉴시스

▲미중, 첩보 ‘그림자 전쟁’...“냉전시대 미·소 갈등보다 광범위”
▲日記시사, 유엔총회서 안보리 개혁 주장 방침...핵군축 필요성도



▲중국 군용기 28대, 대만 주변서 장거리 비행훈련 도발 /사진 뉴시스
▲“北, 김정은 방리로 정찰위성 궤도 안착 달성할 가능성”



메가마트 신동익
농심 지분
있단 매도
L1



Life

셀트리온헬스케어
유플라이마
유럽시장서 선전
L2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 KRX거래소 컨퍼런스홀 metro • metro경제
후원 : 국토교통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거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자리 찾은 '글로벌 물류', 친환경·미래지향적 진화 시작

엔데믹에 물류·모빌리티 변혁기 연구개발 등으로 융합·발전 가속화 직구 등 국경 허문 초국경무역 커져 물류산업 혁신 등 '미래 물류' 강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단절, 지연, 부족, 적체 등의 단어로 가득했던 글로벌 물류가 점점 정상화되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7월 펴낸 '2023년 상반기 물류브리프'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글로벌 공급망은 이 기간 겪은 사상 초유의 상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에 걸쳐 '뉴 노멀(new normal)'이 확립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급망 위험 분산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리쇼어링 및 중국의

존도 축소 ▲권역화 추세 강화 ▲자동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등에 기반한 역동적 리질리언트(resilient·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을 지금의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꼽았다.

물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런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 진보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융합·발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화 추세는 그렇다치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류와 모빌리티의 진화는 인류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게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모빌리티는 전기와 수소 등으로 서서히 옷을 바꿔 입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 ICT 등의 기술이 물류, 모빌리티와의 융합도 이미 대세가 됐다.

정부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로봇

배송, 드론 배송,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스마트물류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개별 나라, 사기업의 물류기지 구축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전세계 요충지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지는 초국경무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대표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당시 3225만5000건이던 해외직구 물량은 4298만8000건(2019년)→6357만5000건(2020년)→8838만건(2021년)→9612만건(2022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해외직구 1억건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8번째로 올해 진행하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은 이런 현상을 집중 조명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로 정했다.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10	축사	김경만 국회의원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50	기조강연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 글로벌 물류 산업 혁신 동향 및 미래 물류 모빌리티 전망
14:50~15:20	강연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새로운 커머스시대 스마트 물류
15:20~15:50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
15:50~16:20		최규범 로지올(생각대로) 부대표 : Lastmile, EV and ESG

기조강연은 인천대에서 동북아물류대학원을 이끌고 있는 송상화 원장이 '글로벌 물류 산업 혁신 동향 및 미래 물류 모빌리티 전망'이란 주제로 포문을 연다.

송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빠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배송할 수 있는가?) ▲풀필먼트 서비스 혁신(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디지털 물류 혁신(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의 '새로운 커머스시대 스마트 물류',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의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의 'Lastmile, EV and ESG'의 강연도 포럼에서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다.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2003년 문을 열었다. 송상화 원장은 올해 7월부터 제9대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으로 취임해 대학원을 이끌고 있다.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물류 및 공급망관리(SCM)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대가 있는 인천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인천자유구역이 있는 동북아 물류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북아물류대학원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물류회사, IT기업, 유통기업, 스타트업 등에 최적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 원장은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에서도 '물류산업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아워박스는 풀필먼트 서비스(On-demand Fulfillment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다. 고객사 전용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웃소싱 서비스, 고효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물류 컨설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및 파이낸싱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박철수 대표는 피자헛코리아, KFC, 디아지오코리아를 거쳐 AB인베브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을 역임했다. 아워박스는 2017년 창업했다.

아워박스는 현재 경기 평택, 군포, 오산(스마트 센터), 곤지암(GC 센터), 평택(신세계푸드 센터), 충북 음성(동원 온라인 센터) 등에 풀필먼트 센터를 갖추고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김서영 대표가 2014년 창업한 하이리움산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이송·안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회사다. 액화수소탱크, 수소충전소, 연료전지파워팩, 수소드론을 비롯

해 미국 차트인더스트리와 기술 제휴한 탱크트레일러 등이 주요 생산 제품이다. 차트인더스트리와 협력해 수출입시 쓰는 ISO탱크, 수소충전소용 지상저장탱크 등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하이리움산업이 개발한 최장 5시간 비행하는 수소연료드론은 최근 독일에서 시연에 성공했다. 수소연료드론은 내년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남미 브라질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도전도 한다.

하이리움산업은 지난 9월 초 경기 평택 포승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액화수소 관련 각종 제품을 본격 생산한다.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



국내 배달 대행 플랫폼 업계 1위인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는 로지올은 인성그룹 계열사다. 쿼·대리운전 프로그램 업계 1위인 인성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인성그룹은 이륜차부터 사륜차

까지 아우르는 IT 기반의 종합 물류 시스템 기업이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보유한 최규범 부대표는 로지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겸하고 있다.

로지올은 국내 1위의 이륜차 렌트서비스 회사 바이크뱅크,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닷스테이션을 관계사로 두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로지올과 닷스테이션은 대만의 스타트업 '고고로'와 독점 계약을 통해 고고로가 생산하는 전기이륜차를 국내에 보급하며 친환경 비즈니스에도 앞장서고 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잠실 돐구장' 계획 발표...LG·두산, 6년 간 임시 안방 찾아야
▲히샤를리송 동병상련 손흥민 "내가 골 넣은 것보다 좋다" /사진 뉴시스

▲'세르비아 무난 데뷔전' 황인범, 이제 시선은 맨시티로
▲2023 KBL 컵대회 타이틀스폰서, 'MG새마을금고' 확정



▲女배구, 강호 폴란드에 1-3 패배...올림픽 예선 2연패 /사진 뉴시스
▲아시아게임 정식종목된 브레이킹...팝핀현준 해설